

# art

IN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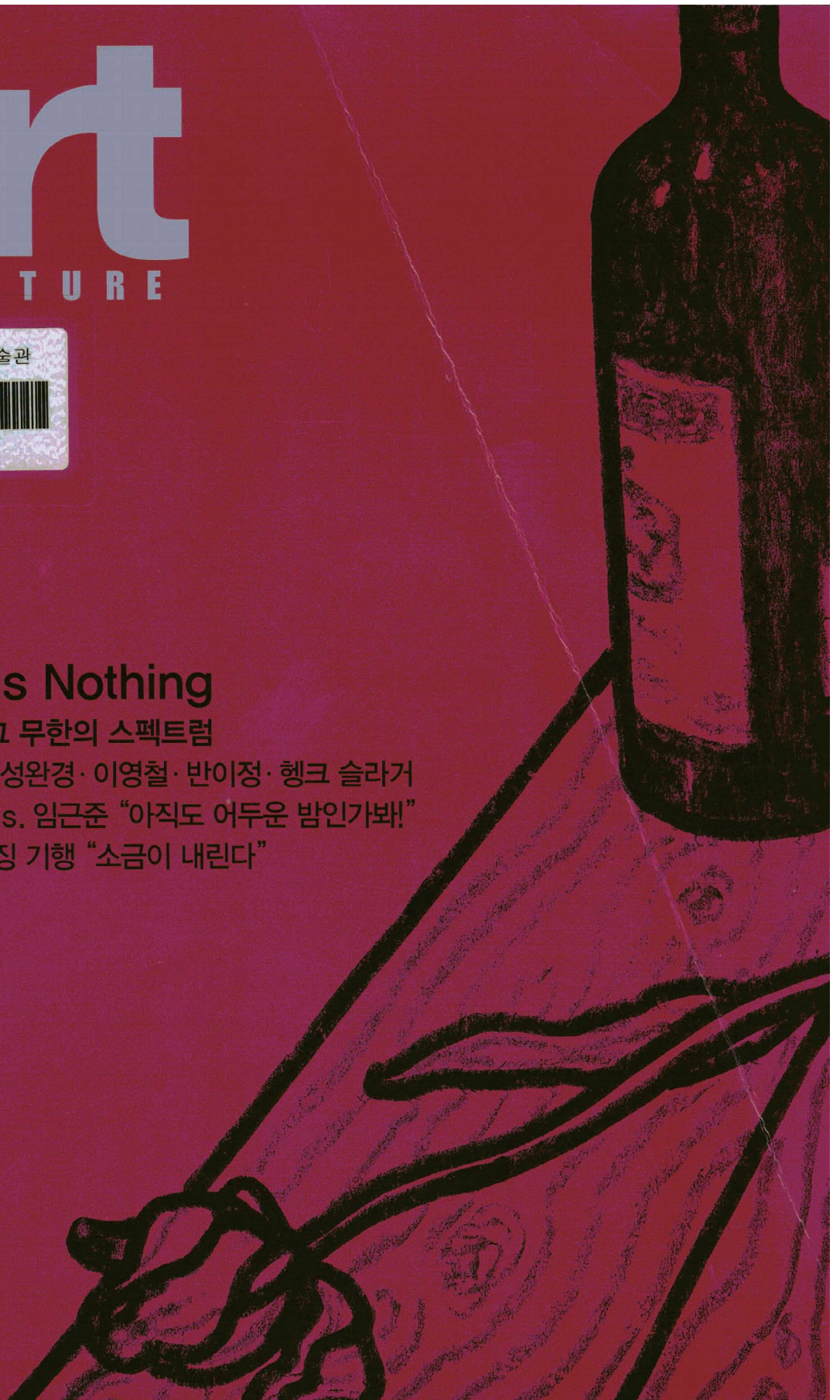


## Drawing is Nothing

오늘의 드로잉, 그 무한의 스펙트럼

비엔날레 뒷담화\_성완경·이영철·반이정·헝크 슬라거  
대담 Sasa[44] vs. 임근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김주영의 티벳 연징 기행 “소금이 내린다”

2006 12





# 안소연

##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커미셔너가 결정됐다. 김선정(2005년 커미셔너), 김홍희(2003년 커미셔너), 김범(2005년 참여 작가, 윤난지(2003년 운영위원), 최태만(국민대 교수, 전 부산비엔날레 총감독), 김성원(2006년 국제소위 위원, 지원심외위원), 김정현(시각소위 위원), 박신의(남북 및 국제 교류 소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선정위원들은 현재 리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안소연 씨를 새 커미셔너로 낙점했다.

### 한 명의 작가를 선정, 제대로 프로모션하는 게 전략

광주, 부산비엔날레가 개막하고 그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을 즈음, 미술계의 관심사는 다시 베니스비엔날레로 옮겨간다. 지난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자르디니 안에 마지막 타자로 한국관을 설립한 이후 매 회마다 커미셔너 및 참여 작가의 선정 결과는 늘 '뜨거운 감자'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 다음, 뒤이어 열린 부산비엔날레 개막식 리셉션에서 만난 이들의 화제는 이미 베니스로 넘어갔다. "베니스 커미셔너는 누가 될 것 같나요?" 지난 10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커미셔너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다시 화제는 "도대체 베니스에는 몇 명의 작가가 갈까요?"로 바뀌었다. 전시 뒤풀이 자리에서는 사람들마다 7명에서부터 2명까지 다양한 '수'에 내기를 걸 지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의 경우 15명이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세웠기 때문이리라.

아직 커미셔너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지만, 조금이

라도 빨리 내년 베니스비엔날레의 윤곽을 그려 보고 싶은 생각에, 공식 발표가 난 지 한 달여 만에 리움미술관으로 안소연 씨를 찾아갔다. 첫 인사를 나누려 하자, “저는 절대 ‘핫’한 인물이 못 되는데...”라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안소연 씨는 이번에 그동안 다른 커미셔너들이 감히 선택하지 못했던 ‘비장의 카드’를 용감하게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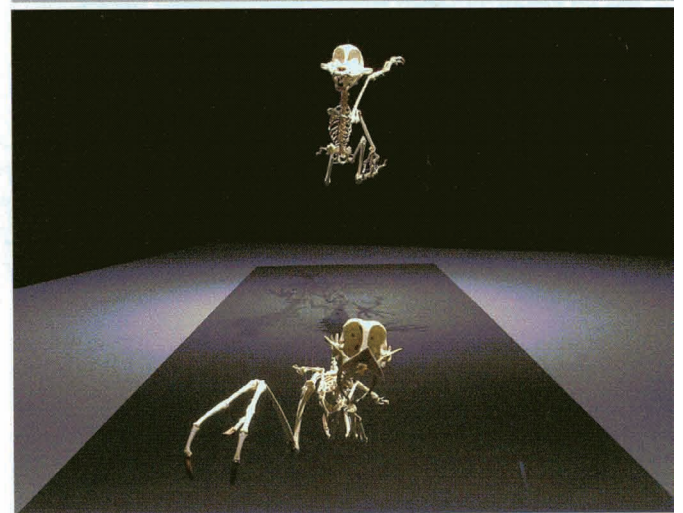
그 카드는 바로 단 한 명의 작가만을 베니스로 보내는 것이다. 역대 커미셔너와 참여 작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이일(참여작가: 윤희근, 박훈, 김인겸, 전수천), 1997년-오광수(이형우, 강익중), 1999년-송미숙(이불, 노상균), 2001년-박정미(마이클 주, 서도호), 2003년-김홍희(황인기, 박이소, 정서영), 2005년-김신정(배영환 박이소 최정화 김홍석 함진정연두 김범 문성식 성낙영 나키온 오형근 박기원 박세진 이주요).

그 동안 한국관 전시의 특성을 꼽아본다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나 이론가를 커미셔너로 내세워, 2~3명의 중견 작가들을 ‘잘 어울리게’ 배치했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에 다녀온 사람들마다 좁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연면적 73평이지만 단층인데다가 이런저런 자투리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순수하게 작품을 걸 수 있는 크기는 그리 넓은 편이 아니다. 그 좁은 공간을 2~3명이 나누어 썼던 것은, 물론 기획자의 주제 구현 문제도 있겠지만, ‘안배’를 미덕으로 삼는 한국 미술계의 정서도 한몫 했을 것이다. 한편 15명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2005도 전시에 대해 안소연 씨는 “한국 현대미술의 분위기를 국제 미술계에 전달하고,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전시였다. 하지만 나의 경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작가를 넣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다. 사실 파빌리온은 아르세날레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이 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한 명의 작가를 제대로 프로모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이켜 보면 베니스비엔날레의 다른 국가관(심지어 전시장이 한국관보다 더 넓을지라도) 역시 한 작가만 내놓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오히려 ‘스타 작가’ 한 명을 띄워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영국관의 경우 길버트와 조지를 내세웠다. 프리 오프닝 기간 내내 작가 둘은 영국관 입구 앞에서 연신 기념촬영과 사인 공세에 화답해야만 했다. 벌써 내년 커미셔너와 작가를 발표할 국가관도 적지 않다. 영국관은 yBa 중 선두로 꼽히는 트레이시 에민, 미국관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프랑스관은 소피 칼, 그리고 한국관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일본관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오카베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관을 독차지할 단 한 명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큐레이터로서의 욕심을 차리자면 주제기획전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좋은 작가야 많지만 베니스에서 세계 관객들에게 시각적 임팩트를 강하게 주고 싶고, 나는 작가의 작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작가를 넣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 사실 파빌리온은 아르세날레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이 내재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 명의 작가를 제대로 프로모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위·안소연 씨가 기획했던 〈매튜 바나:구속의 드로잉〉전(삼성미술관 리움, 2005) 전시 광경  
아래·〈아트스펙트럼〉전(삼성미술관 리움, 2006) 전시 광경\_2001년 호암갤러리 시절 처음 신설,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그 동안 기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의 외부 활동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른 독립큐레이터에 비해 안일하게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 미술계에서 이슈를 던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문제는 큐레이터의 개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노력할 것이다”는 안소연 씨의 말에서 아마도 비주얼리티가 강한 작가가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 큐레이터로서의 삶,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의학도를 꿈꾸던 평범한 이과생이었다던 그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라는 직함도 없던 시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기획자의 길에 들어선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작가들은 무조건 존경한다. 재능이 없어 내가 직접 작업할 수는 없지만, 전시 역시 ‘제2의 창작’이라 생각하면서 작가들의 예술 활동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안소연 씨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작가를 존중하던 마인드는 지금까지 그가 기획했던 주요 전시-〈요셉 보이즈전〉(국립현대미술관, 1991), 〈이불전〉(로명갤러리, 2002), 〈마인드 스페이스〉전(호암갤러리, 2003), 〈매튜 바니〉전(리움미술관, 2005)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측근으로부터 “이건 그동안 수고했다고 주는 선물일 것”이라는 축하의 말을 들은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미술관이라는 ‘대형 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안소연 씨에게 실제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그리 어려운 전시가 아닐 것이다. 우선 커버해야 할 공간 크기부터 작아졌으니 말이다. “그 동안 기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의 외부 활동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른 독립 큐레이터에 비해 안일하게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 미술계에서 이슈를 던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문제는 큐레이터의 개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리움미술관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내년 여름에 열릴 현대 사진전을 맡았다가, 커미셔너로 선정된 바람에 외부 큐레이터를 섭외하는 중인데, 사실은 그 전시에서 빠지게 된 것조차 너무 섭섭하다고 한다.

이미 안소연 씨는 11월 초, 베니스 사진 탐방을 마친 상태다. 더욱이 안소연 씨는 지난 1995년, 팔라쵸 벤드라민에서 백남준의 노력으로 열렸던 한국관 개관기념 특별전 〈호랑이의 꼬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 베니스 현지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베니스비엔날레 역사 최초로 미국 출신의 전시감독이 선정되어 세계 미술인들의 공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에게만 한국관의 단 한 명의 주인공은 누구일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겠지만, 뉴욕 MoMA의 큐레이터를 역임하고 현재 예일대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로버트 스톤가 맡은 주제전에 한국 작가로 누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일이다. 베니스비엔날레 외에도 카셀도쿠멘타, 뮌스터조각프로젝트, 리움비엔날레 등 굵직한 전시들로 그 어느 해보다도 미술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여름, 한국 미술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 호경윤 수석기자

안소연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불문과와 동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하고 정부 파견 장학생으로 프랑스 큐레이터학교와 파리시립미술관 등에서 연수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을 역임했고(1986~1996),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의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청년작가〉전(1987), 〈젊은 모색〉전(1992), 〈아트스펙트럼〉전(2001, 2003, 2006), 〈마인드 스페이스〉전(2003), 〈사춘기 징후〉전(2006) 등을 기획했다.

